

한국 전통가정교육과 대순사상

김 순 자
(대진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전통적 가정교육의 특징을 논의하고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물론 종도들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문제점 및 대책을 논하였다.

전통가정교육이란 현재 가정교육에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치를 중시여기고 그 가치를 목적으로 하며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가정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대순사상 속에 담겨진 한국전통교육의 특성으로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정의 화목함을 근본으로 자녀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부모에게 효행을 하도록 하되 강요가 아니라 깨달음을 그 방법으로 택하였다.

셋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하도록 하였다. 윗사람은 수하를 사랑으로 지도하고, 손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였다.

넷째, 타인에 대하여 언행을 바르게 하고 타인이 잘 되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경쟁심, 시기심을 억제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였다.

다섯째,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및 예의범절을 중시하여 생활화 시켰으며, 협동심, 단결력, 상부상조, 책임감등 민주적 태도를 육성 시켰다.

이러한 특징은 매우 긍정적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대순진리회 도인의 가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교육의 문제점은 유아를 보육전문가도 없는 연락소에 맡겨 놓고 포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아보육 및 교육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우선 각 지역에 있는 회관을 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종교, 대순진리, 전통가정교육, 부모교육, 효

Education in Korean Treditional Home and Daesoonjinri

Kim, Soon-Ja
(Daej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Daesoonjinri Taoist behavior and educational function in Korean Treditional t home .

A religious group following Cheungsan's creed, Daesoonjinrihoe emerged as a new folk religion at the turn of the century in Korea. At a time marked by social disorder, and disintegration moral values, Korea was them plunging into a state of chaos as abysmal as it was hopeless. Such ethos could not but worsen the situation of women. The feudal social system of Chosun trampled on women's life more heavily and Confucianism drove them to worsen the situation.

Maternal relig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oth boy's and girls' perceptions of parental attitudes.

The religious of the family, and sex of the child determined variations in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Principles of child education presented in those traditional Korean child education books can be identified as (1) modeling and identification, (2) integration of knowledge and behavior, (3) spontaneity of learning, (4) learning by doing, (5) early education with consideration of critical periods, and (6) individualization.

Unlike other religions, the educational function of Daesoonjinrihoe accords with conflict theory due to the former's acceptance of idea of Ceungsan's Haewon(解怨, working off women's grudge) Sangsaeng(相生, living together). That is, the conflict arising from the unfair distribution of social authority can only be solved by pursin human equality, and women, in order to overcome their marginalized status, must develop their ability to struggle for freedom and emancipation. Daesoonjinri through individual and group education, instilled the no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 into people's minds, thereby developing their critical faculty and help them regain individual dignity. This way, Daesoonjinrihe (1) acknowledges equality of women and fosters will power to overcome social barriers, (2) encourages one's potential by reaffirming human independence, (3) succeeds to the tradition of filial devotion through proper worship of ancestors, and (4) helps institutional education by establishing various schools.

From the standpoint of Daesoonjinrikyo women are the root of all things in universe, and they are appreciated and respected more than men. In other words, it awakens the individuality of mal-treated women, children, and the poor, and helps them to restore human rights and to attain human release. Besides, it corrects the system to work off women's grudge by Haewonsangsaeng, mends women's status to realize their nobility, and enacts the

principle of Jungeumjungyang for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so that women may lead a balanced relationship with men, by fulfilling their Dori(道理, what one should do as a human). These principles are reflected in Taoists(道人)' everyday life flowing to today, but the sexism of Confucianism, which is underlying our history, needs more change.

Therefore I want to suggest several things to promote the educational function Daesoonjinri

First, Early child educational centers are required to be built, and more diverse educat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run.

Second, teaching methods for individual and group education need to be developed, and various teaching tools should be introduced to heighten the educational effect.

Third, the access to education should be opened to both sexes.

Fourth, educational programs for parent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climate to raise children with bi- sexuality should be made.

Fifth, men's positive assistance and their change of thought are needed.

However, the significance of filial piety denotes love and respect of children for their parents and ancestors in Daesoonjinri taoist. Filial piety is the root of all virtues.

Key words : religious, Daesoonjinri, traditional home education ,parents education, filial piety

I. 서 언

20C는 교육의 세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발전된 시기이다. 특히 20C 후반에 접어들어 과학과 경제 발전이 정책적 목표가 되면서부터 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전술과 훈련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특히 지식중심 교육으로 치우쳐졌다. 미국의 심리학자 Gardner(1993)는 그 동안 서구사회의 세 가지 주류, 즉 '3 ists'에 강한 반론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으로 감성교육을 제시한 바 있었다. '3 ists'는 Westist, Bestist, Testist이며, Westist는 서구화 주의를 일컫는 것으로 논리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사조이다. 인간성 존중보다 인과적 논리와 합리가 우선되는 냉엄한 실적주의, 현상주의를 말한다.

Bestist란 일류주의, 최고주의이다. 최고, 제일이 아니면, 모든 것이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일등주의 우월 주의를 뜻한다.

Testist란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불신하는 몰인정한 과학주의적

사조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서구 사회의 '3 ists'에 큰 영향을 받아 정서교육, 인성교육, 감성교육, 인간교육 보다 지식위주의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왔다.

우리는 아무런 반성적 통찰 없이 전통문화를 도외시하면서 서구의 것을 숭상하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무분별한 서구화는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각각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하겠다. 순수 객관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평등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적 관리방식의 서양식 가정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 증거의 일부는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폭력문제, 성 문제, 마약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양사상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인간 그 자체와 인간의 행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명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일로 회생시키고 있는 오늘날 인간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에 의지하고 있다. 최재선 외(1991)는 종교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올바른 삶을 인도해 주며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사회는 무속 내지 샤머니즘이 오래 전부터 바탕에 깔려있고 유교·불교·기독교와 같은 종교들이 유입되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각각의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적 공휴일은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의 개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을 꼽을 수 있다. 조상제사와 관련이 있는 추석과 구정은 거의 종교적 성격을 가진 가정의례로 지내고있어 가정 교육 속에서 종교의 의식이나 믿음은 저절로 내면화 될 수 있다. 이렇듯 종교가 우리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19세기 우리민족의 서민층에서 발생한 대순진리는 우리전통가정교육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가정환경 및 가정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 대순진리 속의 전통가정교육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가정환경 및 가정 교육의 특성

1. 가정환경

가정환경의 구조는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그렇게 적절한 분류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가정환경에서 사회나 경제적 지위를 물리적 환경이라는 범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래의 물리적 환경으로 정리되

던 환경적인 변인을 일부조정 하여 지위환경 (status environment)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리적 환경은 개인의 작용하는 외적조건과 자극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조직되어 체계화되어 있는 구조적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가정환경은 외적자극과 조건 및 조직화된 체제가 개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분위기 또는 풍토하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정환경 모형을 지위, 구조 및 과정환경에 대한 요소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의 지위환경> : 가정의 지위환경요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① 양친의 상태 ② 거주지의 생태적 환경 ③ 사회·경제적 지위 ④ 가족구성 ⑤ 가옥 상황 등이다.

<가정의 구조환경> : 가족환경은 지위환경을 제외하고 구조환경과 과정환경으로 이루어진다. 구조환경은 앞서 규정한 바 조직화된 체제이며 이에 해당하는 환경요인은 ① 문화적 상태, ② 영양 및 위생상태 ③ 언어모형, ④강화체제 ⑤ 가치지향성 ⑥ 학습체제 ⑦ 집단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가정의 과정환경> : 과정환경은 개인과 그 개인에 근접해 있는 외적 조건이나 자극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 과정환경의 요인으로서 다섯 개의 측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① 수용—거부, ② 자율—통제, ③ 보호—방임, ④ 성취—안일, ⑤ 개방—폐쇄이다.¹⁾

즉, 지위환경이 정적인 상태라고 전제될 때, 과정변인은 동적인 환경변인이며 심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인적 물적 조건이나 자극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양극을 연결하는 연속성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개인이나 어떤 환경조건과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복합적인 관계이다.

유아교육은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 따라서 유아들이 양질의 가정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초기 유아교육의 질 여하에 따라 후속 되는 학교 교육의 효과가 결정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정범모에 의하면 초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다음 네가지로 지적하고 있다.²⁾

첫째, 적정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어린이가 유아기에 꼭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할 경험들, 즉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동기에는 아동기의 발달에 필요한 경험,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의 발달에 필수적인 경험을 해야 하듯이 유아

1) 정원식 외,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1992).

2) 정범모, 1983.

기에는 유아기에 필요한 발달적 경험을 해야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유아기의 경험이 후기 발달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신생아기 또는 영아기 초반에 감각적 자극이 결핍되면 후기의 감각기관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지체된다. 생후 4~6개월경의 웅얼이 단계에 있는 영아가 부모에 의한 음성적 자극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면 후기의 언어발달이 지체된다.

셋째, 누적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유아의 발달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발달이 잘못되면 나쁜 영향이 그 다음의 발달단계에도 지속되며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 불가역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어떤 특정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 그 후기에 충분한 보상적 자극이나 경험을 제공받는다 고 하더라도 원래의 발달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한 예는 문화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 여사의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그녀의 지적은 1976년 세계 어린이 해를 맞이하여 제출한 연설문에서 언급한 “Baby can't wait”라는 슬로건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진 자의 아기든, 가지지 않은 자의 아기든 기다리지 않고 10개월이 되면 어김없이 출산을 맞게 된다. 그러므로 임신 중에 산모의 영양결핍, 각종 질병, 그리고 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받은 영향이 출산 후에 잘 대해 주어도 원래 상태로 복원되지 않음을 말한다.

인간의 성장이 신생아에서 영·유아기 아동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3세 미만 아동의 보육과 3세~5세 유아의 교육은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우선 투자해야한다. 유아기는 사회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 학습태도, 인성의 기초, 도덕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유아교육 수준의 질이 질적으로 높을수록 그 효율성을 더 높아진다. 미국 유아교육협회소속 Children's Defense fund(1990)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질의 유아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1을 투자하면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그 유아가 성장한 후에 받아야 할 특수교육,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드는 비용, 복지자금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4.75에 이른다고 한다. 또 보상교육을 위해 미정부가 연간 한 유아에게 \$600을 투자하면 그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지 않고 상급학교에 취학한 후 유급을 했을 때 드는 비용 \$4000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미국의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도 가정과 유아교육에서 기본생활교육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흡연, 마약 복용, 범죄, 혼전 성 관계 및 미혼모 출산 등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

은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영·유아기에 양질의 교육을 해야한다는 사실은 최근 뇌 생리학자들에 의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Nash는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가정교육과 정책적 배려를 기울여 하는 사람이나 국가들은 2010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EQ 이론을 제시한 Goleman(1995)은 정서의 순화 기제는 출생 후 아동을 지나는 동안 그 어린이가 하는 경험에 의하여 조작되어 진다고 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 중요한 경험을 위협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자들은 초·중등 교육을 제대로 올려놓은 다음 유아교육 제도를 정비해도 된다고 하지만 유아들이 성장을 멈추고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다. Peter Huttenlocher에 의하면 출생 직후 하나의 뇌 세포에는 2500개의 synapses가 연결되어 있으나 생후 6개월이 될 때 18,000개가 될 정도로 연결 작업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다. 가장 많이 연결된 때는 만 2세 정도이며 그 후 11세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뇌 세포간의 연결은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데 Nash(1997)가 인용한 Baylor의 과대학의 Bruce Perry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경험이 뇌를 구성하는 중요 건축가이다. 유아기에 정서적 긴장을 주는 경험은 뇌 발달 형성의 밑그림을 그려주므로 영·유아기에 뇌에 생기는 변화는 성장한 후까지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했다.³⁾

이상의 논의에서 특히, 가정에서의 유아교육에 중요성이 강조된 바와 같이 유아 교육은 새천년을 맞이하며 국가,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가정환경의 특성

가정환경의 특징은 인간형성의 기초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의 교육적인 작용을 강력하게 담당하고 있다.

Freud는 인성의 대부분이 6세 이전에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에도 일차적으로 부모를 동일시의 모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Bloom(1953)은 인간의 정의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적 특성도 80%가 취학 전에 형성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부모는 가정에서 어린이의 훈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의 모델이 되며 자녀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

3) Nash, J. Madeleine, *Fertile minds*. Time, Feb. 24, 1997, pp.28-36.

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가정의 학습체제나 언어모형, 가치 지향성 등에 작용하게 되며, 수준 높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학교학습 모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준이 낮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곧 부모의 문화수준 패턴에 따라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유대는 그 집단 속에서 동질적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집단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향상시키며 결속력을 갖게 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가족구성원간의 친밀한 심리적 유대관계는 가족구성원에게 안정감을 형성시키며 정서적 유대를 확장시킨다.

따라서 가정환경은 한 개인에게 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 및 신체적 특성의 바탕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환경이며, 특히 정의적 행동특성을 결정하는 주요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언어모형, 지적수준, 문화적 수준, 그밖에 가정의 종교, 가치관 등이 있다.

3. 전통가정교육

1) 전통의 개념

전통이란 사전적(字典的) 해석에 따르면 통(統)이란 漢字는 ‘실’이란 사자(糸字)와 ‘길다’는 의미의 충(充)이란 문자로 이루어진 회의문자(會意文字)이다. 그러므로 통(統)이란 실꾸리에서 꿰임없이 실을 뽑아 내듯이 면면히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통(傳統)이란 말을 전달과 계통이란 말의 합성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통이란 말을 전달한다고 하는 기능적인 의미와 계통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계통을 따라 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통을 의미하는 영어의 “tradition”이란 말은 “traditio”란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넘겨준다는 (handing over)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이란 말은 꿰임없이 전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전통이란 말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며 꿰임없이 계통을 따라 전승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보면 계통을 따라 넘겨주고 넘겨받을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개념이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전통의 실체를 다루는 그 내용을 문화라 할 때 넘겨주고 넘겨받는 전통의 실체는 전통문화를 의미한다.⁵⁾ 즉 전통이란 말은 계통을 따라 꿰임없이 전승되는 현상과 전승되고 있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며 전통가정교육 사상이란 계통을 따라 꿰임없이 전승 되어오고 있는

4) 이계학,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현재적 조명」,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995.

5) 이계학, 위의 글.

교육사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전통은 역사적 측면, 실체적 측면 그리고 가치적 측면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다는 특징을 받는다. 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학습을 매개로 하여 가능한 것이고 개인의 차이에 따라 전통의 내면화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의 변화가 일어난다.

실체적 측면에서 전통은 시간, 주체, 공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간상 전통은 현재에도 살아있는 실체이며 전승되는 동안 동질성이 없을 경우 그것은 이미 전통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전통의 전승 주체는 그 문화를 소지하고 있는 문화주체이며, 마지막으로 전통은 구체적인 공간을 통하여 전승되며 가정은 전통이 전승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상에서 전통의 역사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을 보면 전통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해온 것이며 동시에 불변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전통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를 겪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이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 외에 가치적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전통의 가치는 인류가 하고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행동과 사고의 원천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다. 개인은 전통을 받아들임으로서 행동하고 사고하며 전통의 범위 안에서 행동과 사고의 자유와 창조를 향유한다고 볼 수 있다.⁶⁾

한편, 유혜령(1994)은 한국전통가정 교육은 20세기 근대화 이전의 한국가정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국전통 가정을 이루게 된 한국전통 사회의 특징은

첫째, 가부장적 절대왕권 사회로 국가단위에 있어서 1인의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제도가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가족구조도 세습적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 가부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위가족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사회라는 기본적 모형에 입각하여 형성되었으며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질서유지가 당연히 되었고 이상적 합리적 논리의 질서보다 가부장적 가치가 우선하는 특징을 보였다. 즉, 혈연논리라는 자연적 질서 체계는 왕과 신하와의 관계같이 아버지와 자식의 개념, 형과 아우의 서열개념으로 해석되어 전통관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봉건제 전통사회는 농업이 경제의 핵심분야였다. 신분구조에 따라 사회의 지배층이 토지를 소유하고, 천민에 속하는 피지배층이 이를 경작하여 일부분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서양의 봉건제 체제와 다름없었다. 전통사회의 농업체제는 혈연중심의

6) 김영철, 『전통가정교육연구』, (서울 : 문음사, 1995).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띠었고, 친족간의 평등한 신분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노동력의 증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다산과 다남의 가치가 선호되었다.

셋째, 수직적 신분사회인 전통사회의 기본적 신분체제는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양분되기 마련이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치자계층과 피치자 계층구분 이외에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가서는 국가의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사대부 계급을 양반으로 하였고 중간 신분의 계급층으로서 의관, 역관, 음양관, 비관, 율관, 화원등의 기술관과 문관의 하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신분제는 엄격한 수직적 인간관계를 이루었으며 생득적으로 세습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하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혼인도 같은 계급 내에서만 가능한 계급내혼만 허용되어 엄격한 신분제가 영속되던 사회였다. 신분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적 사적인 의미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법제상으로는 상민 계급까지 교육을 받을 기회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기회 그리고 토지 소유의 권리 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반을 제외한 중인과 상민 계급은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았다. 특히 천민 계급은 기본적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신분간의 이익 차이가 극히 심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

넷째, 유교윤리사회관은 조선조의 건국이념 자체가 유교에 입각한 만큼 지배적인 사회규범으로서 삼강오륜의 대 윤리 강령이 적극 장려되었다.

특히, 사회 윤리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⁸⁾

첫째, 효를 근본 바탕으로 한 사회 및 가정의 기본 윤리는 가부장권의 세습 계승제를 정당화시켰다. 세습적인 가부장권에 대한 효의 도리는 종적 관계로 확대하면 왕에 대한 충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횡적 관계에서는 사랑과 화목의 인간애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결국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기본 덕목이었다. 특히 충과 효의 근본 개념이란 다같이 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상 생활에서 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 여겼으므로, 효를 다해 받들어야 하는 가부장의 존재는 충성으로 섬겨야 하는 제왕의 존재와 같은 것이었다. 즉, 세습 군주에게 절대 왕권이 부여된 것처럼 전통 가족사회 내에서는 가부장에게 가족 통솔의 절대권이 부여되었다. 가족의 대표자로서, 가족 생활사의 감독자, 지휘자로서, 재산권 자로서, 조상 숭배의 의무를 지닌 제사권 자로서, 그리고 자녀의 교육자로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녔던 것이다. 가부장의 지위를 좀더 확대하면 씨족 문중의 최고 어른이요, 더욱 확대하면 국가의 절대 군주가 되는 것이었다.

둘째, 가부장권의 계승제를 요구한 유교 윤리는 혈연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파생시켰

7) 유혜령, 앞의 글.

8) 유안진,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1996).

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존재 가치보다 자신이 속한 문중과 가문 속의 서열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파악되는 관계적 맥락이 더욱 중시되었다. 즉 전통 사회의 개인은 개인으로서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집단 속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였던 것이다. 혈연에 의해 얻어지는 이러한 관계적 맥락 속에서 개인은 그가 속한 가계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였고, 이 혈연적 연속성은 자신의 개인적 존재 가치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셋째, 남성 우위의 성별 차등 가치관을 강화하였다. 남자인 장자에게 가부장권이 세습되는 가족제에서 남아 중시 사상은 가계의 존폐 가능성과 연관되어 생겨난 당연한 결과였다. 따라서 여성은 생남의 의무를 다하여 가문을 번성시키는 역할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 칠거지악, 삼종지도 등의 유교적 여성 도덕은 가계 유지와 가문번성을 위한 여성의 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넷째, 유교 윤리는 인간관계에 있어 종의 질서를 확립시켰다. 가족내의 부자간, 형제간, 남녀간의 수직적 인간 관계가 강조되었고, 심지어 낮선 타인과의 또는 타 가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분별, 연령별, 직종별, 성별, 행렬별 등 무수한 종적 구분 원칙이 작용하여 수직적인 관계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종적 인간 관계는 조선조 사회의 사회 윤리적 특징이었다. 당시 사용되었던 신분제 복식 양식, 무수한 존칭 어미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적 특성에서 가장 강력한 종적 위계 질서를 지닌 사회 중 하나였음을 쉽사리 엿 볼 수 있다.

2) 전통가정교육의 개념화

전통가정교육의 개념은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다'. 즉,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육을 의미한다. 김영철(1996)은 전통이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이며, 전통가정교육의 개념은 일반적 수준에서 전통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철은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전통가정교육의 일반적 정의는 물론 현대가정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전통가정교육과 현대가정교육이 단절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전통가정교육을 전형적인 사례로 하는 전통가정교육의 개념은 현대가정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가정교육은 현대가정교육과 다르다라는 주장은 전통가정교육을 포함하는 전통이 단절되었다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육'과는 다른 가정교육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개념의 선입관은 오래된 것 옛것, 구태의연한 것으로 구분하고 현대와 시기적으로 과거를 지향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김영철의 개념을 채택하여 현대가정에서 표현되는 전통적 가정교육으로의 의미를 취한다. 즉, 전통가정교육은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며 전통이 교육의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을 모두 포괄한다는 입장이다. 전통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하나의 전통으로부터 추상된 내용으로서의 전통과 방법으로서의 전통인 만큼 전통은 내용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고정된 시점에서 파악될 수도 있고 내용의 전달과정으로서의 방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수되는 시점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전통 가정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즉, 시간성, 주체성, 공간성의 특징을 포함해야 하며 우리조상들의 가정교육의 형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현대 가정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집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손인수(1978)나 최흥기(1976)는 전통사회의 가치의식의 하나로 집과 가족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가족성원은 개인적 존재로서 중요시되었다기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 사회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으로서 제구실을 다하는 공동체적 존재로서 중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은 가족을 묶어주는 사회적 의미를 지녔으며 가문이나 씨족이란 집의 개념이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씨족으로 태어났느냐로 보았다.

이러한 가치관에 의하면 어린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집을 형성하는 가족성원으로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가문, 문중, 씨족사회에서의 지위는 그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즉, 만아들로서 맏딸로서의 지위에 걸 맞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집이란 사회와 집의 개념이 확대된 가문, 문중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가치관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며 집을 형성하는 것이 결혼이었다.⁹⁾ 전통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기라 보다는 두 집안의 관계 맺음이었다. 시집간 딸을 부를 때도 시집간 동네 이름을 붙여서 불렀고 시댁의 성씨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집을 중요시했던 가치관의 표현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에서 집의 개념은 씨족 즉, 일가친척으로 확대되어 작게는 한 가정내의 장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크게는 누구의 조카 또 누구의 증조부로서의 역할도 기대되었다.

연대책임제적 가치관은 촌수의 원근에 따라 친척의 복지·세금 등의 책임역할도 수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역적으로 물리면 삼족이 처벌받게 되었던 것도 그러한 가치

9) 최흥기, 『가족구조의 변화와 어린이 사회화』, (서울 : 배영사, 1976).

관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정내의 종적 관계지향 태도가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장유유서라는 권위지향적 유교윤리로서 각 개인의 역할이 규정되며, 국가사회에서는 임금과 신하라는 종적관계를 규정 짓게 되었다. 이러한 종적 관계를 지향하는 가치의식은 조상의 혈통을 이으며 제사를 위하는 필수 불가결한 종적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서 다남(多男)의 가치의식이 발생했다. 이 모든 가치는 결국 영구히 이어지는 종적 관계와 집이라는 대가족 공동체내의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에서 발생했다고 보며 종적, 종속적 관계에서 규정된 각각의 역할이 기대되고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횡적 관계도 유지하는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봉우유신이라든가 같은 항렬끼리의 동등의식이 곧 그것이다. 종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면서도 횡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될 수 있는 기준은 뚜렷한 도덕기준 이었다. 도덕기준 또는 윤리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집의 개념에서 발전된 각 개인의 역할로서 행동화되었다. 확고부동한 유교윤리가 곧 사회가치였으며 삼강오륜이 각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주었다. 이것은 대가족이라는 공동생활과 씨족사회, 국가사회라는 공동생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질서의식인 동시에 역할교육의 기준이기도 했다. 전통사회의 아동은 이러한 명백한 도덕기준으로 각자가 부여받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의식하고 배워나가도록 교육받았다.¹⁰⁾

3) 가정교육에서 종교의 영향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 종교의 의식에 따라 제반가족행사를 종교적인 절차에 따라 치르며, 온 가족이 모여 가족내의 일상생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종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과 용기를 갖게 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신앙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며 인간이 겪게되는 경제적·사회적·정신적·신체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의 기능을 한다.¹¹⁾

종교인들은 가정교육을 비롯하여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문제 즉,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 임신과 낙태에 관한 문제,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문제, 부부간의 성적·정서적인 갈등문제, 가족폭력문제, 청년기 우울감과 위기감 문제, 노인 소외 문제 등을 종교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10) 유안진,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1984).

11) Charles Y. Glock, 1965.

가정교육과 종교에 관련된 연구로는 기독교 가정교육¹²⁾과 가정윤리¹³⁾ 그리고 종교 갈등¹⁴⁾, 종교인의 가정생활과 가치지향¹⁵⁾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가족 가치관은 대학생의 경우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에서 불교를 믿고있는 학생이 보다 전통적이었으며¹⁶⁾, 성 역할관은 천주교를 믿는 학생이 보다 전통적이었다.

효행은 기독교나 불교인 경우가 타종교나 무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¹⁷⁾, 종교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부모 부양의식이 높았다.¹⁸⁾ 이러한 현상은 종교를 가진 학생의 행동기준이 무의식적으로 규범적이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혼례의식, 낙태의식, 이혼에 관한 태도에서 혼례의식은 불교가 타종교보다 뚜렷이 전통적 이었으며¹⁹⁾, 혼전 성 행동은 남자 대학생의 경우 신앙심의 영향을 받지만 여대생의 경우 신앙심과 상관없이 없었으며²⁰⁾, 낙태에 대한 태도는 카톨릭은 무종교에 비해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았다.²¹⁾

이혼에 대한 태도는 불교나 무교에 비해 천주교, 기독교를 가진 여대생이 보다 전통적이었으며²²⁾, 여성노인의 경우 재혼의 불합리성이 종교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으로써²³⁾, 종교인들은 더 규범적이고 고정 관념적인 태도를 더 많이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종교유무에 따른 어머니 자신의 성 역할 태도와 딸의 성 역할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²⁴⁾는 연구결과도 있다.

-
- 12) 김진곤, 기독교 교육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0 ; 고문선,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관동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심창걸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장신대 석사학위논문, 1987.
 - 13) 이정덕, 불교의 가정윤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송순, 유교·원불교에 나타난 가족윤리와 아동교육,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4.
 - 14) 전영복, 기독교 학생의 가정 내에서 종교적 갈등과 신앙생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8 ; 이정덕·전미경, 가족 내 종교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13권 4호, 1995.
 - 15) 최은경, 종교인의 가정생활과 가치지향에 관한 연구- 불교·천주교·기독교 신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6권 4호, 1998.
 - 16) 강숙경·고정자, 1996 ; 김일명·김명자 1989.
 - 17) 고경미·서병숙, 1988.
 - 18) 최정혜, 앞의 글, 1997.
 - 19) 이정우·김명나, 1990.
 - 20) 윤경자, 1995.
 - 21) 오선주, 1996.
 - 22) 정현아·서병숙, 1985.
 - 23) 성병숙·김혜경, 1997.
 - 24) 이정우·정종희, 1984.

인성측면에서 안정성은 비기독교 아동에 비해 기독교 가정 아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²⁵⁾, 내외 통제성은 부모의 종교가 있는 아동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²⁶⁾, 노인의 경우 역시 종교는 내외 통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일수록 내외 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났다.²⁷⁾

이는 종교가 인성을 통합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긍정을 하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함으로 성숙한 종교성을 갖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통제성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²⁸⁾ 공격성은 기독교를 믿는 청소년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천주교, 불교, 무교, 천도교, 유교로 갈수록 공격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기독교를 믿는 청소년이 불교나 기타 종교집단보다 더 지배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협동적이고 온순한데 반해 불교를 믿는 청소년은 보다 더 반항적이며 공격적이고 경쟁적 행동특성을 보였다.²⁹⁾ 즉, 인성측면에서 내외통제성은 종교가 있을 경우 높았으며 안정성 측면에서 기독교 가정 아동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 즉, 건강성, 안정성, 응집력, 적응력 등을 살펴보면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³⁰⁾, 종교가 있는 경우 삶의 질의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혼 안정성은 부부의 종교가 일치할 경우 불일치 한 경우에 비해 높았다.³¹⁾ 이는 부부가 일치된 종교를 가짐으로써 일단 종교생활의 공동참여로 인해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부부들 보다 많고 이를 통해서 부부간의 가치관 합의도 커질 수 있으므로 결혼생활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은 가족내 공통된 종교가 있는 경우에 더욱 강화되었다.³²⁾ 그리고 종교가 없는 집단은 종교가 있는 집단에 비해 자녀에게 순종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아동기의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는 아버지의 종교가 기독교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역시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일 때 가장

25) 정수자, 1979.

26) 이희자 · 권영옥, 1992.

27) 현은민, 1996.

28) 변경애 · 김순옥, 1999.

29) 정수자, 1981.

30) 박미석, 1996 ; 고정자 · 김갑숙, 1997.

31) 김미숙 · 김명자, 1990.

32) 안선영, 1994 ; 최규련, 1994.

33) 현은민, 1994.

높게³⁴⁾ 나타난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가족기능은 종교가 있을 경우 수행도가 높았으며 자녀양육은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 일 때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가정 교육 수행도와 가정 교육 수용도 모두 높았다. 종교활동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가족간의 갈등 혹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며³⁵⁾,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여주며 생의 기쁨을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³⁶⁾

종교활동은 여성의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되어주며, 노인들에게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여주고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가 활동은 노인의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원봉사 활동은 종교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종교의 영향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종교가 있는 경우 가족가치관·효의식·가치의식·내외통제성이 높았으며, 노인의 소외감에 도움을 주고 문제해결을 잘 하며 삶의 질, 가족결속도가 높았다.

둘째, 가족구성원의 종교가 일치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안정성·응집력·적응력이 높았다.

셋째, 여학생에 대한 혼전 성 행동도 어머니에 대한 성 역할 태도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개개인의 종교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다수의 종교일치 또는 불일치가 주는 영향력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질적인 종교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Ⅲ. 대순사상에서 전통가정 교육

우리민족 에게 있어서 민중의 생명운동으로 등장된 동학은 민중 자신이 민중 자신을 스스로 해방하는 민중생명의 진정한 자기회복, 창조적인 주체 회복 운동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전문화·전문명·전사회적인 억압과 분단, 기만과 세뇌, 조작, 증오의 촉진, 공해, 정신 및 인간생활 일반에 있어서의 온갖 형태의 질병, 전생태계의 약탈, 생명파괴, 중생파괴가 절정에 달한 죽음에 맞서 민중이 참다운 해방운동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결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운동이다.

34) 왕석순, 1991.

35) 강정희, 1995.

36) 현은민, 1996.

동학은 우리민족 특유의 민중적인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유교, 불교, 노장사상과 도교와 기독교 등 제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을 통일하되, 특히 민중적인 생명사상, 민중적인 유교, 민중적인 불교, 민중적인 도교와 민중적인 차원에서 새로 조명된 노장사상과 선사상, 민중적 기독교 사상 등의 핵심적인 생명원리를 창조적으로 통일한 보편적 생명사상이다.³⁷⁾

최수운은 신라 말의 대학자로 신라정신을 신봉하던 최고운의 28대 손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재천에 관한 우리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동양의 하느님이 내재적인 것을 중시하고, 서양의 하느님의 초월적인 것에 착안하여 도는 동서양이 같으나 학은 동서양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양의 기독교 즉, 서학이 식민지 지배에 협조한 것도 알게 되었고 일본이 조선을 넘보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동학을 창시했고 수운의 1864년 순교한 뒤 그의 제자 최해월이 교단을 이끌었다. 1871년에는 강증산이 탄생하였다. 그 동안 국가 정세가 매우 불안하여 구질서를 타파하고 일본을 본받아 서양의 문명을 받는 계기로 개화를 시도하던 김옥균 일파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1894년에는 동학교도인 정봉준이 갑오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1894년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강증산은 24세의 청년이었다. 강증산은 민생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대상도 없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구제 할 수 있을까 하고 노심 초사 했다.

증산은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길을 수운에게서 찾았다. 수운의 시천주 사상은 사람속의 한울님이 계시니 그를 모신다는 것인데 사람이 곧 하느님이 되는 인내천 사상이다. 증산은 사람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어 곧 하느님이 된다는 사상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자기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이 우주의 최고신인 하느님 즉, 상제이고 신은 곧 자기라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오내천의 자각에 도달했다. 증산은 곧 자신이 상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증산이 스스로 상제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불손하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다. 오내천 또는 아시 상제라는 것은 자신이 치성기도 송주목님, 정좌, 심고 등 여러 가지 수련·수도 끝에 자신 심중에 모시고 있는 하느님과 일체가 되었다는 자각을 말하는 것이다.³⁸⁾

공자도 「천이 덕을 나에게 내렸으니 누가 나를 어찌겠느냐」하여 자기는 보통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자신을 가졌고 석가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여 이미 불성을 깨친 이상 자신은 모든 존재의 최상위임을 선언했다. 예수도 자기를 스스로 하느님 아들 됨을 선언하여 자기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이상 이미 보통사람

37) 김지하, 『동학이야기』, (서울 : 숲, 1994).

38) 이항령, 대순사상의 우주사적 의미, 《대순사상논총》 1, 1996.

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자신함과 같이 증산도 스스로 도통의 높은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형성을 간단히 언급하면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정산이 15세에 천명을 받들고 23세 때에 증산의 계시로 득도하여 태극도를 세웠는데 정산이 우당을 도전으로 임명하고 그 도를 전했으므로 우당이 종통을 이어받았다. 우당이 태극도에서 다시 대순진리회를 세우고 증산·정산의 도 맥을 이었다.

증산사상은 태극사상으로 집약될 수 있고 태극사상은 대순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태극은 증산 사상의 천도, 신도, 선도, 미륵사상 등으로 상징되는데 정산은 증산사상을 우주의 궁극적 실체인 태극에 기초하였다. 태극은 무극에서 시작하여 태극이 되고, 태극은 음양의 조화로 삼계를 대순하므로 우당이 태극의 동적 측면을 포착하여 대순이라 하였어도 대순과 태극이 다를 바없다.³⁹⁾

대순사상의 주요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 우주관으로 천하대순사상, 천지공사사상, 후천계벽 사상이며 인생관에는 인존평등 사상, 해원상생 사상, 보은협동 사상이며 사회관으로는 원시반본 사상과 만국활계사상, 조화선경 사상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본고는 대순사상 중 인생관을 중심으로 전통가정교육의 특성을 찾고 현대의 대순진리회 도인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녀교육의 장점 및 문제점을 찾아 미래의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인존평등사상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격리시켜 신존인비 사상을 담고 있으며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동격으로 보아 신인동등사상을 갖고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동격을 넘어서서 인간을 신의 상위에 두는 인존사상을 전개했다.

인간은 신의 명령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증산계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신을 마음대로 조정하였다고 한다. 신의 위치를 높이면 인간의 마음이 높아지고 인간의 마음을 높이면 신의 위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신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사역을 당하는 존재로 보고있다.

그리고 신이 살았다고 해서 인간이 신의 노예가 될 수가 없고 신도 인간의 존엄성을 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존을 강조하며 인간의 행복

39) 위의 글.

이나 불행은 신이 준다고보다 인간 자신의 마음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일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⁴⁰⁾

이 말씀은 종교행위로서 신명에 대한 기도보다 마음에 대한 정화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존사상은 한편 인간평등사상을 이끌어 내며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며 계급적 차별이나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여성들에게 정음, 정양의 올바른 천지도수를 밝혀서 여성의 평등을 실현시켰다. 한국전통사회에서는 공리적인 사고에서 서구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아를 남아보다 비교적 경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말에 자식은 남아를 뜻하면서 자녀를 총칭하는 의미로 함께 쓰인다. 딸자식은 가통을 이어가지 못했으며, 한국전통사회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존중받지 못했다. 사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딸이란 「하나는 많고 반조각은 못쓴다는 생각을 가졌고 양념 딸로써는 필요하다고는 보았다」⁴¹⁾ 여아의 이름에도 관명을 붙여주지 않았고 대계 옥이, 구슬이, 간난이, 꼭지 등의 이름을 되는데로 붙여주었다.⁴²⁾

여아의 이름짓기를 보면 첫째는 낳은 월일을 중심으로, 둘째는 태어난 지명이나 장소에 따라, 셋째는 원망이나 소망의 표시로 이름 짓거나 신체적 특징을 넣어 불렀다고 한다. 대체로 남아에 비하여 여아가 덜 존중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중상류 계층으로 갈수록 여아 경시 사상은 훨씬 적었다.

한국인은 자식 특히 사내자식 광이다. 사내아이는 한국인에 있어서 계집아이보다 10배나 더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계집아이도 귀중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버리는 예는 거의 볼 수 없었다.⁴³⁾

위에서 보듯이 무조건 딸이라고 천시되고 함부로 키우고 버려 두지 않았으며 사대부 집안이나 중상류 가정에서는 여아에게 상당한 수준의 문자교육을 시켰다. 여아는 남아보다 차별대우는 받았으나 무조건 경시되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여아에 대한 태도는 인간적이었으며 애정에 기반을 둔 존중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경에서는

40) 『전경교범』 1장 21절

41) 유안진, 앞의 글.

42) 이규태, 1979. p73.

43) 손인수, 1978, p72.

이제는 해원의 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풀어 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⁴⁴⁾

여기에서는 음과 양이 덕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높이는데 있으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상부상조하여 화합하도록 했다. 여성들은 단순히 원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의 덕성을 계발하고 경우 바른 성·경·신의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인간의 자유와 능력발휘를 제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빈부, 남녀차별의 철폐를 주장하여 인간으로서의 평등을 이루도록 하였다.

즉, 지금의 교육원리에서 주체성의 원리, 평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발달가능성의 원리를 이미 적용한 셈이다. 또한 전통가정교육의 특징인 종적관계의 중요성과 횡적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중시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의 상부상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발달가능성을 인정하고 특히 덕성의 함양을 권장하고 있었다.

2 해원상생 사상

인존사상이 인간의 본질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해원상생 사상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힌 것이다. 우주와 인간은 본래 평화적 상생적인 질서로 이루어진 것인데 천하가 불안한 것은 신명계와 인간계가 원한이 차있는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원한이 남아 있는 한 천하가 편안할 수 없으므로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 원한을 푸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한을 푸는 것이 해원 이고 상극을 푸는 것이 상생이다.

기독교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용서의 정신이라면 불교의 자비는 동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증산의 해원 사상은 동체의식에 근원 하는 정화의 정신이다. 즉, 천지만물이 일체인데 그 일체 중에서 막힌 곳이 있으면 전체가 막히므로 천하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막힌 곳을 뚫어서 전체를 정화시키면 천하가 통정되어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다. 동체의식에서는 신체일부의 부정한 곳이 정화됨으로써 전체의 생명을 활기 있게 할 수 있다. 그 부정이라는 것이 바로 원한이다. 그와 같은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용서할 수도 없고 동정할 수도 없다. 원한이 깨끗이 해소되었을 때 미움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져서 대인, 대의의 무병한 세

44) 『전경』, 공사 1장 32절

계가 있을 수 있고 평화와 상생이 있게된다. 그러나, 원한을 푸는 형태로 무속에서 푸닥거리, 살풀이 등이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험이 있을 뿐 무당의 원풀이는 원의 귀신이 집힌 사람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일시적 원신의 추방행위로서 원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능했다.

여기에서 해원이란 그 원 신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신으로 하여금 본래의 원한을 근본적으로 깨끗이 해소시키는 일이며 한편, 신명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도 사리고 있는 원한의 씨까지도 뽑아버리는데 있다. 따라서 원한 자체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퇴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시 불행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증산의 해원 공사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효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원을 푼다는 뜻은 원한문제 뿐 아니라 원천적인 인간본성의 한 까지 푼다는 깊은 뜻이 있다. 전경에는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풀어라. 萬一 다 풀지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느니라.⁴⁵⁾

사람들끼리 싸우면 天上에선 先雲神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느니 天上싸움이 끝난 뒤에 人間 싸움이 歸正 되느니라.⁴⁶⁾

윤리적 부재상황을 반전시켜 윤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상생은 후천선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원상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해원상생의 실천 방안에는 성·경·신을 실천하는 것이며 성은 사람의 정수와 기분과 심신의 합일을 말하며 거짓이 없고 꾸임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 경은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하는 것이며 모든일이 내심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다. 신은 가식이 없는 신앙의 본의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며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자아대성을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방안은 다양하며 전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가정교육의 특성 중 해원상생의 실천을 인간관계 중심으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 자녀 관계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의 은혜는 자식이 평생 보답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간에 행해야 할 실천적인 면에 대하여 대순사상에서는

45) 『전경교법』 2장 6절.

46) 『전경교법』 1장 54절.

한 불경한 태도를 보시고 그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니라. 그 아우가 부친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불손하게 대답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문 앞에서 갑자기 우뚝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연달아 소리만 지르니 가족들이 놀라 어찌 할 줄 모르는지라. 상제께서 조금 지나서 그의 아우를 돌아보시고 ‘어찌 그렇게 곤욕을 보느냐’고 물으시니 그제서야 그의 아우가 몸을 굽히고 정신을 차리는지라. 그 까닭을 가족들이 물으니 그의 아우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데 갑자기 정신이 아찔하더니 숨이 막혀 마음대로 통하지 못하였다 하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그 때에 너는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하시며 크게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부친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부모의 가슴은 어떠하였겠느냐 너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지니라’고 일러 주셨도다.⁴⁷⁾

이는 부모에게 불경한 언행을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함으로서 그를 뉘우치게 하신 것이다. 더구나 부모는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중을 한 것인데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에게 반발심을 품은 것을 상제의 권능으로 그를 깨우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신이 아찔하고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이것을 직접 내 마음으로써 느끼면 그런 언행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행하는 예로, 상제의 부친이 빗독촉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상제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시고 채권자에게 가서 그를 감동시켜 빚을 탕감하게 된 일화가 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불경한 언행을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부모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더욱 적극적인 자식의 도리일 것이다. 또한 유가에서 대효(大孝)로 알려진 순임금에 대하여도 상제께서는 “세상에서 우순(虞舜)을 대효라 일렀으되 그 부친 고수(瞽叟)의 이름을 벗기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⁴⁸⁾라고 하셔서 요임금이 자식된 도리로 효도를 다하여 부모의 악행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훌륭하지만 부모의 악명을 후대에 전하게 된 것은 불찰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에 조금이라도 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有父無子其父何立’⁴⁹⁾ 이라 하신 것처럼 부모도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다 할 때 부모로써의 입지가 성립되어 올바른 부자윤리가 바로 서는 것이다. 또한 대순 사상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례를

47) 『교법』 1장 40절.

48) 『교법』 1장 44절.

49) 『공사』 3장 40절

통하여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효심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제례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잠재적으로 조상에 대한 숭배와 효에 대한 관념이 내면화되어져 그들의 행동특성에도 나타나고 있음은 긍정적 특징이라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의 정신은 옛날부터 미래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전통이며 효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겠다. 효의 현대적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전통의 역사성과 주체성, 공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2) 장유(長幼) 관계

장유관계의 윤리에 대해서 『典經』의 내용을 보면,

상제께서 ... 황 사성(黃士成)의 집에 이르러 머무실 때 어떤 사람이 얼굴에 노기를 띄고 문을 뚧 닫는 바람에 벽이 무너졌도다. 이것을 보시고 곧 상제께서 같은 동리의 정 춘심(鄭春心)의 집에 옮기시니라. 황 사성의 부친 숙경이 황 참봉(黃參奉)으로부터 돈을 얻어 썼으나 그는 죽고 그 아들이 사람을 시켜 숙경에게 갚을 것을 독촉하려 온 것인데 그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경무청에 고발하여 옥에서 신세를 썩게 하리라고 위협하고 돌아가는 마당에 상제께 들린 것이외다.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벽을 무너뜨렸으니 그 일은 풀리리라. 삿갓 한 뼛과 필목 한 필을 사 오라' 고 숙경에게 이르시고 '이것은 양자 사이의 길을 닦는 것이니라'고 알리고 '이후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르셨도다. 연말에 순검이 채무관계로 숙경을 잡으므로 숙경이 순검에게 채권자의 집에 들러 주시기를 간청하니 순검이 그 채권자의 집에 데리고 가니 참봉의 아들이 숙경이 잡혀온 것을 보고 힐난하거늘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저 어른은 너의 부친의 친구이신데 네가 차마 그 분을 옥에 가두게 하다니 금수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고 책망하면서 아들로부터 증서를 빼앗아 불살랐도다.⁵⁰⁾

위의 내용은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오직 손익만을 따져 아랫사람이 윗 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잊고, 고발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을 상제께서 금전관계의 원한을 풀어 이 일이 채권자의 어머니를 통하여 도리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선친(先親)의 친구를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하여 옥에 가두어 해를 입게 하는 것은 아랫사람으로서 행할 바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수칙⁵¹⁾에서는 아랫사람은 존장(尊長)을 경례(敬禮)로써 섬겨야 하고,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애휼(愛恤)·지도해야 함을

50) 『행록』 3장 23절.

51)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제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을 경례로써 섬기고, 수하를 애휼 지도하고, 친우간에 신의로써 할 것.” (『大巡眞理會要覽』, 21쪽)

이야기하고 있어 윗사람의 입장에서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숙경도 윗사람으로서 채무의 약속을 기일 내에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윤리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유관계 에서는 이익관계로 인하여 손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면 안될 것이고,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며 아랫사람을 사랑하여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외에도 대순사상에서는 특기할 만한 장유관계의 윤리가 있는데 그것은 장유의 구분 기준이 나이나 항렬보다는 신적인 등급이 그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부에 나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들이 계시는 도다. 내가 그들을 대할 때에 반드시 항렬을 좇아 말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윤리상 전통이라.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 만 모든 신명은 그들의 불경한 언사를 옳지 않게 여기고 반드시 죄로 인정하느니라. 나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친족과의 왕래를 적게 하느니라(행록 1장 38절).

위의 내용 살펴 볼 때, 상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서 가장 높은 신적(神的)인 위격(位格)을 가진 절대자이므로 인계(人界)에서 단지 윤리적 전통에 따라 상제를 하대하는 것이 신계(神界)에서는 죄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로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연령이나 항렬보다는 종단 내의 직위에 따라 존장과 수하를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유관계의 윤리에서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여 예의로써 대우하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지도하여야 하고, 사회집단의 지위에 따라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가정에서도 출생순위 및 항렬에 따라 그들의 역할과 호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는 도의 직위를 더 중시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 직위는 대부분 실천적 업적을 중시하여 많은 도인들은 자녀교육을 뒤로하고 포덕사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 할 수 있다.

3) 봉우 관계

봉우관계의 윤리에 있어서 수칙에서는 신의(信義)로써 서로 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상제께서는

시속에 있는 망량의 사귀이 좋다고 하는 말은 귀여운 물건을 늘 구하여 주는 연고라. 네가 망량을 사귀려면 진실로 망량을 사귀라고 이르셨도다.⁵²⁾

52) 『교운』 1장 7절

라고 하여 친구를 사귀에 있어서 진실한 마음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망량을 사귀려면 진실로 사귀라는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면 서로를 좋아하여, 좋은 물건을 보면 서로 친구가 생각나므로 그 친구에게 주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친구가 주는 물건의 이익을 탐하여 친구를 사귀는 것은 진실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친구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서로를 속이게 되므로 올바른 행위라 할 수 없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⁵³⁾

위의 글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해치는 일은 하극상의 일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선천에는 상극(相克)의 법리로 인하여 이러한 패륜이 자행되었으나 후천의 상생(相生)의 법리 속에서는 강륜이 바로 서기 때문에 감히 하극상을 저지를 수 없으며, 만일 하극상을 범한다면 배사율이 적용되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고 스승을 대하여야 하며 절대 스승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스승은 또한 제자가 없으면 설자리가 없으므로⁵⁴⁾ 제자를 올바르게 가르쳐 사회의栋梁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 인간관계에서 윤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어떠한 인간관계이든 대전제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이며, 이에 입각해서 모든 윤리를 실천해나갈 때 인간관계의 윤리가 재건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인 도덕규칙에 의하여 행동하려 한다 하여도 그 관계사이에 원(冤)이 있으면 윤리가 올바르게 행해질 수 없으므로, 해원상생의 원리 속에서 서로간에 원을 풀고 상생하려는 마음으로 실천하여야 윤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효도하고, 충성하고,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의를 지키며, 은혜에 보답하는 등의 모든 인간관계의 도덕법칙들은 모두 남을 위한 상생

53) 『교법』 3장 34절.

54) 『공사』 3장 40절, “有師無學其師何立”.

의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윤리질서가 옳게 세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가 바탕이 되는 전통교육의 사상은 이미 대순사상에서 충분히 담고 있으며 상제께서는 가정의 평화를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해원공사(解冤公事)는 인간계와 신명계에 쌓인 겁액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한 공사이다. 이로써 삼계가 상통하고 상생하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신명이 모두 살 수 있는 내·외적인 환경조성이 천지공사로서 만들어졌다. 이에 상제께서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해원상생의 사상을 실천하는 문제가 남으며 특히, 가정교육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해원상생은 실천윤리의 대강령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원상생이 되어야 혼란한 현실을 극복하고, 대순진리의 목적인 지상천국, 도통진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해원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지상천국은 가능한 것이다. 즉 인간 상호간, 국가간, 민족간, 계급계층간, 인종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명들이 모두 원한을 풀고 상생해야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典經』에는 해원상생의 실천을 구체적인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야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뿔하듯 하리니 ⁵⁵⁾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⁵⁶⁾

악장제거 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⁵⁷⁾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⁵⁸⁾

위의 예문에서 해원상생의 구체적인 실천은 척을 짓지 않아야 하고, 남을 우대하며,

55) 『교범』 3장 4절.

56) 『교범』 1장 9절.

57) 『교범』 1장 11절.

58) 『교범』 1장 57절

남을 잘 말하며,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타인을 우대하고 귀하게 여겨 존중함으로서 해원 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하여 좋게 말하여 언덕(言德)을 잘 가짐으로서 그 사람이 잘 됨과 동시에 그 여음(餘蔭)으로 인하여 덕이 되어 복을 이루게 된다. 또한 네번째 예문에서는 해원상생을 실천하여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怨讐)까지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⁵⁹⁾

이렇게 가정교육에서 해원상생을 실천함으로서 타인도 잘되고 실천 당사자도 일방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이루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원상생의 실천은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잘 되게 함으로써 나도 복덕(福德)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정신과 물질이 조화되고 인간의 심성을 회복할 수 있는 화해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원상생이 실현되어 지상선경을 이룬 사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典經』에 설명되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제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익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

이는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써 다시 태어나도록 교육하고 타인과 함께 친 사회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3. 보은협동사상

인간이 세상에 태어남도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라기보다

59) 이와 관련해 『典經』의 다른 구절에서는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교법』 3장 15절) 라고 하여 강조하고 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 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되 그렇게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⁶⁰⁾

라고 보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言德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善하게 하면 그가 잘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몸에 이르나니라.⁶¹⁾

이웃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고 혹 병이 생겼을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착이 되나니라.⁶²⁾

이처럼 가정교육에서의 태교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전통가정교육의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예절 등 협동정신의 교육내용이 제시되었다.

해원이 되어 천하가 모두 상생하게 되면 천하 만물이 모두 서로 의지하여 살게 되므로 천지에게 보은하고 신명에게 보은하고 인간에게 보은을 하게되면 모두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천지인이 협동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된다.

선천상극의 시대에는 보은보다 복수가 많으며 조화와 협동보다 갈등과 투쟁이 많았다. 이 갈등과 투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대순사상은 인간계나 신명계가 다 같이 화평하고 화합하는 해원상생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의 심성이 정화, 개조되고 그 개조된 심성으로 협동하는 사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화, 개조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은협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언행을 바로 하여 타인에게 착을 짓지 않도록 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이루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협동관용 화합 단결 등의 민주적 태도를 육성할 수 있는 정신을 담고 있다.

IV. 결 론

오늘날 우리 나라의 가정과 학교는 서구식의 가치관과 교육관에 몰입하여 우리의

60) 『전경교법』 2장 36절.

61) 『경전교법』 2장 44절.

62) 『경전교법』 2장 46절.

전통, 가치, 문화, 역사, 생활양식 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배양토를 만들고 있다.

미래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가 가속될 것이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 다국적 언어가 혼재할 것이다. 특히, 산업문명의 급속한 변화와 지식 산업 사회의 실현은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요구하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모형도 본질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서구화주의에 빠져 인간성 존중보다 인과적 논리와 합리성을 우선하였다. 또한 지식위주에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서교육,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무시당하고 물인정한 과학주의 사조를 존중했다. 그리고 최고주의, 인류주의 등 제일이 아니면 모든 것이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우월주의에 빠져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은 부모를 가정으로부터 일터로 유입되어 가정기능이 파괴되었으며, 사람들과의 정과 의리를 더 소중히 하는 인간 지향적 사고가 무시되었다. 이렇게 전통적 사고가 무시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지는 자녀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 가정교육에서 대순사상을 살펴보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태도, 종교 및 정신적 테두리 속에서 성장하게 되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 언어모형, 지적수준, 기대체제, 문화체제 등은 자녀의 지적행동 특성과 정의적 행동특성을 결정하는데 주요 변인이며, 감성, 가치관, 자아개념, 성취동기, 신념체제 등의 정의적 행동 특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어 내면화되어진다. 이러한 태도의 대부분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의 종교, 신념, 종교의식, 태도 등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민족종교는 우리 민족의 정체감과 문화적 주체의식을 찾고 계승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대순진리회는 유, 불, 도의 고전 동양종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종파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생활 속에서 충실히 담아 내고 있었다.

즉, 전통이라 함은 오래되었다는 개념 혹은 낡은 것으로의 개념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성을 지니고 주체성으로의 실천 주체성을 지니며, 공간성으로의 집, 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가정교육이란 현재 가정교육에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치를 중시여기고 그 가치를 목적으로 하며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가정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대순사상 속에 담겨진 한국전통교육을 해원상생의 사상

에 터 하여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화목함을 근본으로 자녀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부모에게 효행을 하도록 하되 강요가 아니라 깨달음을 그 방법으로 택하였다.

셋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하도록 하였다. 윗사람은 수하를 사랑으로 지도하고, 손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였다.

넷째, 타인에 대하여 언행을 바르게 하고 타인이 잘 되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경쟁심, 시기심을 억제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였다.

다섯째,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및 예의범절을 중시하여 생활화 시켰으며, 협동심, 단결력, 상부상조, 책임감등 민주적 태도를 육성시켰다.

그러나 현재 대순진리회 도인의 가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교육의 문제점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한 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후천계벽에 의지한 신앙생활로 현세의 교육에 비중을 두지 않고 포덕 사업에 종사하는 신앙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를 보육전문가도 없는 연락소에 맡겨 놓고 포덕 사업에 열중하는 경우 유아의 교육 및 보육문제는 그 심각성을 피할 수 없다. 기독교의 경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를 선교원으로 활용하여 유아 보육 및 교육에 공헌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기의 보육 및 교육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지적 특성 및 정의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기에 가출, 문제아 등 비행청소년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순진리회는 현장실천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도인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도인이 많은 편이어서 유아의 유치원 교육 및 고등교육 등을 시킬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최근 대순진리회에서 교육사업을 크게 하여 미래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더 확대 될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산포된 회관을 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도인의 자녀교육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덕 사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전경에 나타난 전통가정교육의 사상과 현재의 도인가정의 실천 수준을 비교할 때에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고문선(1995),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규식(1993), 「한국종교와 사회변동의 특수성 연구」,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순자(1997), 대순진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 교육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 4.
- 김영기(1991),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철(1998), 『전통 가정교육 연구』, 서울 : 문음사.
- 김지하(1994), 『동학이야기』, 서울 : 솔.
- 김진곤(1980), 기독교 교육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송 순(1994), 유교·원불교에 나타난 가족윤리와 아동교육,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심창걸(1987),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1984),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 윤기봉(1998), 해원상생의 종교학적 이해,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4.
- 윤이흠 외(1994), 『한국인의 종교』, 문덕사.
- 윤재근(1998),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4, 대순사상학술원.
- 이계학(1995),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현재적 조명,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이정덕(1992), 불교의 가정윤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덕·전미경(1995), 가족 내 종교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 이항령(1996), 대순사상의 우주사적 의의, 대순사상 학술원, 《대순사상논총》 1.
- 전영복(1988), 기독교학생의 가정 내에서 종교적 갈등과 신앙생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정용두·류성민(1995), 『종교학 10강』, 성광문화사.
- 정원식·이상로·이성진(1992),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 최은경(1998), 종교인의 가정생활과 가치지향에 관한 연구 - 불교, 천주교, 기독교 신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4).
- 최재선 외(1991),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 바울서신사.
- 최홍기(1976), 『가족구조의 변화와 어린이 사회화』, 서울 : 배영사.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Basic Books: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ece*. New York: Bantam Books. Nash, J. Madeleine
(1997). *Fertile minds*. *Time*. Feb. 24, 28 - 36.